

# 전주 XR·메타버스 산업 얼라이언스 출범

### 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범식 가져... LX·전북은행 등 21곳 참여 6개 프로젝트 수혜

최근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을 포괄하는 가상융합기술(XR)이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와 공공기관, 기업들이 XR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전주시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이영로)은 14일 전북VR·AR제작거점센터 3층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이영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20여 곳의 유관기관·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전주 XR·메타버스 산업 얼라이언스(alliance)'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출범한 '전주 XR·메타버스 산업 얼라이언스'는 정부의 가상융합경제 발전전략에 발맞춰 지역산업·인프라와 연계한 XR·메타버스 산업 생태계를 확산시키기 위한 연합체다.

얼라이언스에는 LX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같은 지역 공공기관과 SK플래닛, 전북은행 등 민간기업 21곳이 참여해 6개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며, 시는 사업계획 구체화부터 기술 개발, 사업화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6개 프로젝트는 △디지털트윈 기반 경제플랫폼(유통서비스 등) △교육형 메타버스 플랫폼(원격회의) △디지털



전주시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14일 전북VR·AR제작거점센터 3층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이영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20여 곳의 유관기관·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전주 XR·메타버스 산업 얼라이언스(alliance)' 출범식을 가졌다.

트윈 기반 고정밀 3D 객체 모델링 △블록체인 기반 메타버스 게임 데이터 플랫폼 △챗마중길 XR융합 오픈로드(실감형 콘텐츠 개발) △민팅서비스 기반 미디어 유통 서비스 등으로 구성된다. 일례로, 디지털트윈 기반 고정밀 3D 객체 모델링 구현 프로젝트의 경우 케이스타일즈, 폴리곤디자인랩, 올포랜드, 모아지오 등의 기업이 참여해 하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시뮬레이션 플랫폼을 구축한다.

참여 기업들은 오는 12월까지 각자

의 프로젝트를 진행한 뒤 최종 비즈니스 모델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와 공동으로 국가사업 발굴 등에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된다.

이에 앞서 시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지난달 얼라이언스에 참여할

3D 객체 모델링 구현 프로젝트의 경우 케이스타일즈, 폴리곤디자인랩, 올포랜드, 모아지오 등의 기업이 참여해 하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시뮬레이션 플랫폼을 구축한다.

참여 기업들은 오는 12월까지 각자

이브랩 △편웨이브(주) △(주)윌러스 코 △(주)고백기술 △(주)SGO △전주MBC 등으로 프로젝트 그룹을 꾸렸다.

이와 관련 시와 진흥원은 지역 XR 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재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북VR·AR제작거점센터와 스마트미디어센터에서 연간 100여 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실감형 콘텐츠 제작 및 편집장비 등 이용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또 지난 7월부터 가상융합기술을 선도하는 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4차례에 걸쳐 'XR 온다(ONDA) 세미나'를 열고 XR 산업의 전망과 기술을 공유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변화의 속도에 올라탈 수 있어야 지역의 미래도 열릴 수 있다"면서 "전주 XR·메타버스 산업 얼라이언스는 지역 내 XR 기업 육성을 통해 메타버스는 신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는 전략적인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5월 이동통신사와 미디어 기업·기관이 참여하는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를 출범했으며, 참여 기업들에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과 핵심기술 개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 '전주김장문화축제' 개최

###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11월 2~30일 온·오프라인 진행

맛의 고장 전주에서 김장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축제가 다음 달 열린다. 보답하고 싶은 이웃에 김장김치를 보내는 나눔 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는 다음 달 2일부터 30일까지 전주종합경기장 등 전주시 일원에서 '2021 전주김장문화축제'를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개최한다.

올해 3회째를 맞은 전주김장문화축제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장소와 기간을 분산한 가운데 추진된다. 지난해 드라이브 스투로 운영됐던 것과는 달리 올해에는 현장에서 직접 하는 김장체험이 진행된다.

축제는 △김장체험 △김장나눔 △김장문화관광 △특화프로그램 등 12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축제의 메인 행사인 김장체험의 경우 다음 달 19일 450가족 대상 드라이브 스투 방식으로, 20일과 21일 양일간은 1회당 25가족씩 나눠 150가족이 종합경기장에서 김장김치를 담그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또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유학생과 함께하는 김장체험도 김치문화관과 각 대학교에서 펼쳐진다.

19일과 20일에는 김장나눔 행사가 이어진다. 전주 곳곳의 기관·단체에서는 김장김치를 소외계층에 전달하게 되며, 이웃의 어려운 사람이나 꼭 보답하고 싶은 사람에게 김장김치를 보내는 '자연있는 김장나눔' 이벤트도 선보인다.

김장문화관광의 경우 1박2일 코스인 김장문화관광을 할 수 있는 '관광객 김장체험'을 비롯해 전주농산물로 다양한 김치를



만들어보는 '맛있는 김치학교', 나만의 별미김치 1kg 담그기 등으로 기획됐다. 이밖에 특화프로그램으로 20가족 대상 김치경연대회, 탈곡체험, 포도존 등도 다채롭게 마련된다.

김장체험을 원하는 시민은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전주푸드마켓 홈페이지(jfoodmarket.c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10kg당(절임배추 7kg, 양념 3kg) 참가비 5만5000원을 내면 지역에서 생산된 절임배추와 전주시에서 개발한 '꽃지' 레시피로 버무린 양념을 가져갈 수 있다. 한 가족당 최대 50kg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하며 600가족을 채우면 선착순 마감된다.

김장배추는 지역 농가들이 지난 달 초에 재배한 농산물이며, HACCP 인증을 받은 시설에서 절여진다. 고추, 무 등 모든 양념재료는 농산물 안전성검사를 통과한 지역 농산물이 사용된다. 김장문화축제에서 팔고 남은 배추와 고추 등 김장재료는 다음 달 25일부터 27일까지 전주푸드 직매장에서 열리는 김장거리 직거래장에서 판매된다.

/김윤상 기자

# 온·오프라인 '전주독서대전' 성료

### 강연·학술토론·공연·체험·전시·이벤트 등 64개 프로그램 진행

전주독서대전이 시민들에게 독서의 즐거움을 듬뿍 안겨주며 막을 내렸다.

전주시는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전주한벽문화관 일원과 온라인에서 개최한 '2021 전주독서대전'이 2만여 시민들과 소통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당신의 서재, 전주'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독서대전은 사전 예약을 받아 인원을 제한하고 현장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강연과 학술토론, 공연, 체험, 전시, SNS·현장 이벤트 등 64개 프로그램으로 펼쳐졌다.

초대작가 강연에는 정여울, 객석식, 강하길, 이은혜·정은숙, 고미숙, 안도현, 안도, 문신, 백은유, 홍은진 등이 무대에 올라 '마음을 치유하는 글쓰기의 힘', '고전에서 미래의 비전을 찾다' 등 다양한 주제로 시민들과 소통했다.

학술토론에서는 참여자들의 진지함이 돋보였다. 매일 진행된 '책세대' 열린 독서토론과 고전에서 배우는 청소년 비경쟁독서토론, 가깝 이병기

시인을 재조명했던 작고작가 세미나 등이 눈길을 끌었다.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전시 프로그램도 분위기를 띄웠다. △어린이 한지 인형극 △판타스틱 풍선공연 △환상의 버블공연 △당신의 색채, 나만의 스니커즈 아트 △전주도서관 여행 △시민추천도서·당신의 문장·당신의 단어 전시 △조선탐독가의 서재 완판본 전시 등에 관람객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졌다.

화상회의 앱인 줌(ZOOM)으로 진행됐던 △온라인 가족독서골든벨 △비대면 어린이독후활동대회도 높은 참여율을 보였으며, 온라인 체험활동인 △현책을 활용한 종이 화분 만들기 △나만의 아크릴 무드등 만들기도 높은 인기를 자랑했다.

시는 장애인과 즐기는 독서대전을 만드는 데에도 힘썼다. 시각장애인 독서 토론, 청각장애인 수어 풍요 배우기, 장애청소년 챔버오케스트라 위더스 공연 등도 운영됐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 공정무역도시 인증 획득

### 지원 조례 제정·위원회 조직 구성 등 5대 기준 모두 달성

전주시가 생산자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소비자에게는 양질의 제품을 공급하는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획득했다.

시는 최근 (사)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로부터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받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시의 공정무역도시 인증은 국내 13번째이자 수도권 외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최초로, 오는 2023년 9월 22일까지 인증을 유지하게 된다.

공정무역은 생산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소비자에게는 양질의 제품을 공급하는 윤리적인 대안 무역으로, 경제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불공정 무역구조로 발생하는 부의 편중과 환경파괴, 노동력 착취, 인권 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두된 무역 형태이자 사회운동이다.

인증은 위한 기준은 △공정무역 지원 조례 제정 △공정무역제품 판매처 확보 △공정무역실천기관 인증 △교육 및 캠페인 △위원회 조직 구성 등

5가지로, 시는 올해 5대 기준을 모두 달성했다.

시는 지난 2018년 4월 '전주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전주시 공정무역위원회를 설립·운영하는 등 제도적인 기반을 갖췄다.

이어 지난 2019년 9월에는 전주대학교와 (사)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와 공정무역 활성 협약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시는 공정무역에 대한 시민의 공감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교육과 원데이 클래스, 영화와 함께하는 공정무역 체험, 공정무역 감사 양성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왔다. 또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공정무역 제품을 구매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공정무역 제품 판매처 확보에도 힘써왔다. 그 결과 스타벅스 등 대기업 판매처를 제외하고 당초 인구 대비 목표치(인구 2만5000명 당 1개소) 26곳을 넘는 31곳을 확보했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 유기동물 입양자 반려동물 용품 만들기 체험교육

전주시는 유기동물을 입양한 70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반려동물 용품 만들기 체험교육을 운영한다.

체험교육은 △반려동물 가죽 인식표 만들기 △케이크(망토) 만들기 △수제 간식 만들기 △반려동물 그리기(팝아트) 등 4가지 과정으로, 총 14회에 걸쳐 진행된다.

특히 반려동물과 외출 시 인식표 부착이 필수 의무사항인 만큼 '인식표 만들기' 과정이 총 8회(40명)로 구성됐다.

시는 또 평일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입양자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주말 교육도 마련했다.

교육 희망자는 오는 17일까지 네이버 폼(http://naver.me/FHYsx4CI)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on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올바른 반려동물 돌봄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영양상반기 반려동물 문제행동 교정, 영양교육, 건강교육, 동물권 교육, 명사특강 등을 비대면으로 추진했다.

/김윤상 기자

#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